수원주보

연중 제6주일
2020. 2. 16(가해) | 제1878호

1면 그림 '어린이처럼' 심순화 카타리나 作

+ 제1독서
집회 15,15-20

+ 제2독서
1코린 2,6-10

+ 복음
마태 5,17-37
<또는 5,20-22ㄴ.
27-28.33-34ㄴ.37>

음성지원QR코드

입 당 송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영 성 체 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발행 천주교 수원교구 **발행인** 이용훈 주교 **편집** 홍보국.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 031) 242-8081 hongbo@casuwon.or.kr http://www.casuwon.or.kr

"살인하지 말라"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옛 가르침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성경의 한 대목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실제로 살인을 하듯이 물리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해를 끼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혀로, 즉 말로써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처럼 화를 내면서 바보나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경우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그 사람의 심장에 꽂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해를 끼칠 때도, 그 죗값이 작지 않음을 경고하십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의 씨앗을 뿌려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들은 나에게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고 기쁘고 행복을 주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도 독이 되고 남들에게도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발설한 모든 말의 씨앗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미움과 증오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살인이라는 열매는 미움과 증오의 뿌리에서 자란 것이고, 미움과 증오는 '비난과 험담', '멸시와 모함'이라는 말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남들을 비방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집회서에 나오는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28,17)라는 말은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부간에, 형제자매에게, 그 많은 말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잠시 식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모든 말이 애덕에서 비롯된다면 우리의 행동도 생각도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애덕에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글 | 윤동출 프란치스코 신부(성루카호스피스병원 원장)

신부님이 높은 사람인가요, 수녀님이 높은 사람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과거 저의 신학교 시절 교회법 시험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톨릭교회 내에 존재하는 세 가지 신분인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평신도가 성직자와 수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교회법 제208조에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근본적 평등에 대해 언급합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세례받은 모든 신자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닙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모든 신자는 결국 그리스도 덕분에 평등한 것입니다.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높을 수 없으며, 평신도가 수도자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간에 상하계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신분에 따른 고유한 임무는 다릅니다. 사회에서도 어린이와 어른, 노인에 따라, 남자와 여자에 따라, 독신자와 기혼자에 따라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다르듯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는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품을 받지 않은 신자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없고, 반대로 독신서약 혹은 정결서원을 한 성직자와 수도자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다르지만 모든 신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성직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성직자는 신자들을 위해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하며, 본당 신부는 본당 신자들과 개인적 혹은 공동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자는 각 수도회의 색깔(병원 사도직, 본당 사도직, 선교 사도직, 청소년 사도직, 미혼모 사도직 등등)에 따라 평신도와 성직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사제 지망생인 신학생들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모두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각자의 신분에 따른 상호존중은 절대적이며 필수적이어야 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교회 내의 차별과 불평등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식별하는 신앙

그리스도 신앙은 식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요청되는 교회의 사명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신앙의 길인지 등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식별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이유는, 그릇된 신심, 신영성 운동, 신흥 종교 등이 교묘하게 신자들의 신앙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에 더욱 예리한 식별력이 요구됩니다.

신흥 종교에 빠지는 이유로 과거에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소외 현상, 낮은 교육 수준, 현실 세계에서 당하는 질병과 고통 등을 들었으나, 최근에는 현대인 특히 학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의 심리적 취약을 파고들며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한 심리학 전문가는 심리적 취약성과 신흥 종교 사이의 상관관계에 주목합니다. 신흥 종교가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소속감과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며 내면의 고통과 상처와 불안감을 달래주기에 자기도 모르게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막연한 종교심이나 무속적 종교심의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다보니,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신앙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예언, 사적 계시, 기적, 발현 중심의 그릇된 신심이나 허황되고 과장된 성경 해석으로 다가오는 신흥 종교에 쉽게 현혹되고 맙니다.

그릇된 신앙을 식별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판가름 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리스도 신앙은 저 먼 하늘 위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분이 아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역사 안에 오신 하느님,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어 오심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친교를 맺고 당신의 신성을 나누고자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자유와 사랑이 자라나 진정한 일치(친교)를 이루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그분과의 관계 맺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그 무르익는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격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 전체를 차지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글 | 한민택 바오로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벌거벗은 지금》

최덕기 주교의 내 생애의 도서

《벌거벗은 지금》의 저자 프란치스코회 리처드 로어 신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지만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현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에 착안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과 그리스도교가 걸어온 길이 다르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가 서구적 이원론적/이분법적인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모든 명상가들이 주장하는 관상적, 비이원적 사고와 생활의 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적 사유는 항상 보수와 진보, 승리와 패배, 진실과 거짓, 선과 악, 천사와 악마, 이쪽 아니면 저쪽 등 흑백논리에 젖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통합적인 시각을 가르치셨고, 당신 자신이 인성인 신성, 살해당했으나 살아계신 분 등 역설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현실도 역설적이고 양자물리학과 천체물리학도 '논리적' 불가능들로서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원론적인 사유를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17,21)고 하심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언제나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은 '벌거벗은 지금'(The naked now)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고 하시며 마리아가 그 '한 가지 일'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책 77쪽). 이를 위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보는 제3의 눈, 관상의 눈을 얻어야 합니다. 모세가 만일 이를 얻지 못했다면,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결코 하느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원적 사고방식과 집착을 끊어버려 변화로 나아가는 데는 "큰 사랑의 길과 큰 아픔의 길이 있다. 이 둘은 어떤 방법으로도 프로그램화 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으며 자기 뜻을 세워 실천할 수도 없다. … 지혜와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며, 고래 배 속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알게 된다"(84쪽). 끝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워진 정신이 필요'하다.(로마 12,2)며 우리의 경험을 믿음 차원에서 저장하는 실질적인 하드웨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저는 대학생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 정당을 점거하고 난 뒤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젊은이라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IT 컨설팅 회사에 취업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무심결에 넣은 주머니에서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움켜쥔 손을 펴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실 묵주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일상에 묻혀버린 젊은 시절의 가치관이 떠올랐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공장에 취업했다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사망한 대학 선배가 떠올랐고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어 버스 안에서 대성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묵주가 저의 의식을 깨웠고, 억울하게 죽은 선배의 기억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본당 신부님의 권유로 새로 신설한 사회정의분과의 사목위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사는 게 신앙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즈음, 저는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해 두물머리 인근의 컨테이너에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2009년 11월 27일 생명평화를 위한 첫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작고 단단한 움직임으로 시작된 생명평화 운동은 수원교구 사제단을 중심으로 수도권 신부님들을 모았고, 전국 천주교 단체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농민들이 모두 신자는 아니기에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민들과 교회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미사가 온전히 봉헌되기 위해 정성을 쏟았습니다. 930일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살다 보니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두물머리 안에 놓은 십자가부터 미사 터, 그곳을 지키는 봉사자와 어우러진 농민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국에서 쉴새 없이 몰려드는 발걸음… 그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현존하는 신성 같았습니다. 저의 머리로 눈으로 그것을 보는데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것은 제 삶과 하느님의 삶이 일치되는 환상을 보는듯 했습니다.

저는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언덕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일은 이상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신앙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2020 생명나눔 헌혈 및 장기기증 캠페인

✚ 캠페인 일정 | 헌혈시간 : 10:00~15:30

일정	대리구	지구	본당	거점본당 사무실 연락처
3월 8일 사순 제2주일	1	팔달·장안	정자동 주교좌 ※ 개막미사 10:30	031) 252-6776
		오산	갈곶동	031) 377-0011
		기흥	보라동	031) 274-1006
			구성	031) 286-3550
	2	안산	성포동	031) 486-7075
3월 15일 사순 제3주일	1	기흥	보정	031) 896-2977
			동백성요셉	031) 693-6211
		팔달·장안	조원솔대	031) 245-9023
			화서동	031) 246-9014
		송탄	송현	031) 662-6802
3월 22일 사순 제4주일	2	안양2	오전동	031) 429-3801
			비산동	031) 442-4322
			호평	031) 454-3004
			벌말	031) 424-6401
			평촌	031) 457-1245

일정	대리구	지구	본당	거점본당 사무실 연락처
3월 29일 사순 제5주일	2	안양1	군포	031) 456-4333
			용호	031) 395-3900
			수리동	031) 396-3401
			금정	031) 455-2010
		시흥	시화성바오로	031) 431-0537

헌혈 전 필수 유의사항

- **신분증(학생증 등) 필히 지참!**
- **헌혈자격 조건**
  - 나이 : 만 16세 이상 ~ 만 65세 이하
    (60~65세 사이 헌혈경험자는 65세 이상도 헌혈 가능)
  - 체중 : 여자 45kg, 남자 50kg 이상
- **전일 충분한 수면(4시간 이상) 및 당일 아침식사 필수**
- **해외여행은 귀국 후 1개월 경과해야 헌혈 가능**
- **약국판매 일반종합감기약 1일 후, 병원 처방 감기약 3일 이후 헌혈 가능**
  - 항생제(주사) 7일 경과 후 헌혈 가능
    (단, 감기치료목적 항생제 3일 후 가능)

✚ 헌혈버스가 직접 가지 않는 본당에서는 위의 본당 중에 헌혈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시고 '헌혈 버스 배정 본당'에 방문하시어 "생명나눔 헌혈 및 장기기증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당에 비치된 '장기기증희망신청서'는 작성하여 교구 사회복음화국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신청서 스캔 후 첨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 (우) 16346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천주교 수원교구청 1층 사회복음화국 / 이메일 : brave@casuwon.or.kr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T. 031-268-8523

교구

광교2동 성당 기공식
때 : 2.22(토) 10:30
미사 : 제1대리구장 이성효 주교
☎ 031) 263-0651

청북 성당 기공식
때 : 2.29(토) 10:30
미사 : 제1대리구장 이성효 주교
☎ 031) 684-8338

미사

마리아 사제운동 체나콜로 월례 미사
때 : 2.20(목) 09:40
곳 : 수원교구청 5층 성당
☎ 010) 9424-2701

피정

고초골 피정의 집 피정 프로그램

교구 원로사목자와 함께하는 성월 피정
3월 성월 : 2.29(토) 09:30
5월 성월 : 4.25(토) 09:30
비용 : 1만 원(중식 포함)
내용 : 강의, 미사(사전 접수)

최덕기 주교와 함께하는 일일 피정
때 : 3.10(화) 09:30~15:00

기도 레마 피정
때 : 3.20(금) 18:00~23:00
☎ 031) 337-047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때 : 2.27~29, 3.5~8, 3.11~13,
3.17~19, 3.23~26, 3.29~31
내용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 064) 796-9181

제주 면형의 집 피정
한라산 산행 피정 : 2.22~24
자연 순례 피정 : 3.27~29, 4.24~26, 4.28~30
제주 성지 순례 : 3.4~7, 3.9~12, 3.14~17
내용 :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02) 773-1463, 064) 756-6009

구산성지 신앙선조 순교영성

기도회
때 : 3.7(매월 첫째주 토) 14:00~18:00
주제 : 우리 신앙선조들의 기도와 미사
지도 : 정종득 신부

영성 피정
때 : 3.21(매월 셋째주 토)14:00~20:00
내용 : 성경 직해(신앙선조 성경)강의,
묵상, 미사
성가기도 : 고영민(찬양선교사)
☎ 031) 792-8540

수원 MR부부 피정
때 : 40차 3.21(토)~22(주일)
곳 : 가톨릭교육문화회관
대상 : ME주말을 체험한 부부
신청 : www.suwonme.or.kr
☎ 031) 251-2258

교육

청소년

가톨릭 생명 사랑 청년 모임
때 : 2.23(주일) 10:00(매월 넷째 주일)
곳 : 수원교구청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 031) 268-8523, 3907

생태 영성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때 : 3.7~6.20(매주 토) 14:30~16:00
총 10회
곳 : 안양 가톨릭회관 1층
생태환경위원회 사무실
내용 :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창조주
하느님 이야기
대상 : 교구 내 남녀 청년(20세~35세) 신자
회비 : 1만 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070) 4134-5236, 010) 5410-8024

2020년 상반기 순교영성강학
때 : 3.3~6.23(매주 화) 13:30~16:20
(6.23은 피정 및 수료 미사)
곳 : 수원교구청 지하 강당
주제 : 한국천주교회 근현대사
비용 : 7만 원
계좌 : 신협 131-016-639497
천주교수원교구
☎ 031) 548-1121 시복시성추진위원회

안양엠마우스 공부방 프로그램(무료)

베트남어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대상 : 안양시, 안양시 근교에 거주하는
베트남어 사용자
접수 : 2.16(주일)까지 10:00~17:00

선데이아카데미 유치부, 초·중등부 모집
대상 : 안양시, 안양시 근교에 거주하는
유치부(7세), 초등학생, 중학생
접수 : 2.16(주일)까지 10:00~17:00

한국어 교육생 모집
대상 : 안양시, 안양시 근교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 학생
접수 : 2.17(월)~22(토) 10:00~17:00
☎ 031) 441-8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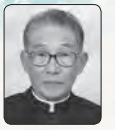
수원교구 성령쇄신 밤샘기도
때 : 3.6(금) 21:00~00:30
※ 3.13(금) 밤샘기도 쉽니다
곳 : 하우현 기도의집
강사 : 하모니 찬양팀, 황현 신부
☎ 031) 251-4400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2020년 상반기 생태 영성 학교 및 생태 탐방
수요 강좌 : 3.4(수)~28(토) 19:00
비전동 성당
토요 강좌 : 3.7~4.11(매주 토) 10:30
하안 성당
회비 : 1만 원(총5강)

생태 영성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때 : 3.12~5.28(매주 목) 10:30~12:00
총 10회
곳 : 안양 가톨릭회관 1층 생태환경위원회
사무실
회비 : 1만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070) 4134-5236, 010) 5410-8024

금주에 기억할 사제


이계항(베드로) 신부
2011년 2월 19일 선종

김진완(안드레아) 신부
2016년 2월 20일 선종

성체조배 기초 교육
때 : 3.4~4.1(매주 수) 14:00~16:00
곳 : 수원교구청 지하 강당
비용 : 3만 원
수원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 031) 253-5664

가톨릭 성음악 클래식기타회

음악 치유 피정 과정
때 : 3.11~25(매주 수) 13:00~17:00
비용 : 12만 원

음악 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
때 : 3.9~23(매주 월) 13:00~17:00
비용 : 15만 원
곳 : 한국음악치료연구소(3호선 대청역)
☎ 02) 575-7661, 010) 4252-1165

사회복음화 자원봉사자 학교

<기본>
때 : (평일반) 4.23(목) 13:00~17:00
(주말반) 4.18(토) 13:00~17:00
곳 : 수원교구청
비용 : 5천 원

<심화>
11기 생명학교 8강좌 중 3강좌 선택하여 이수
비용 : 1만 원
곳 : 수원교구청 지하 강당
신청 : 1004.casuwon.or.kr
☎ 031) 268-3907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판교 지역 IT 회사 직장인 예비자교리
바쁜 직장인들을 위하여, 판교 테크노밸리 지역 종사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자교리를 시작합니다.
때 : 2.26(매주 수)부터 12:10~13:00
8월 중 세례 예정
곳 : 판교 H스퀘어 N동
신청 : skang@kakao.com 강성 안드레아

모집 및 기타

여성연합회 제40차 정기총회 취소 안내
때 : 2.20(목) 09:30~16:0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031) 242-1379

서울 가톨릭 수지침 봉사자 학생 모집
때 : 2.17(월) 15:00
곳 : 서울가톨릭회관 426-1
대상 : 65세 미만 신자
신청 : 1.6(월)부터 / 인원 : 선착순 30명
☎ 010) 8338-9758

(재)안중근바보장학회 장학생 선발
대상 : 국내 대학 신입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
신청 : 2.18(화)까지 / 발표 : 2.21(금)
☎ 031) 671-0044 http://오로지.kr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여식 및 입학식

학사·석사학위 수여식
때 : 2.26(수) 11:00
곳 : 수원가톨릭대학교 대성당

입학식
때 : 3.1(주일) 11:00
곳 : 수원가톨릭대학교 대강당

직수여식
때 : 3.1(주일) 14:00
곳 : 수원가톨릭대학교 대성당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관리를 위해 행사는 축하객 없이 진행합니다.
☎ 031) 290-8800

직암선교후원회 2월 월례 미사
때 : 2.29(토) 15:00~18:00
곳 : 수원교구청 지하 제4강의실
☎ 031) 268-2210, 010) 2939-3569

사이버성경학교 2020년 수강생 모집
개강일 : 3.2(월)
신청 :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2대리구 성경사목
☎ 031) 360-7635, 010) 7470-7966

사진교실 초급반 수강생 모집
때 : 3.3(매주 화) 10:00~12:00
(3개월 과정)
곳 : 수원교구청 지하 제1회의실
☎ 010) 4156-4703 수원교구 사진가회

가톨릭교리신학원 1학기 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예수님을 그린 화가들의 이야기-르네상스 시대
때 : 3.3~31(매주 화) 14:00
강사 : 김준성
비용 : 5만 원(5강좌)

교부들의 그리스도교 철학
때 : 3.6~5.15(금) 14:00
강사 : 김형수 신부
비용 : 10만 원(10강좌)
접수 : 2.21(금)까지
☎ 02) 747-8501 ci.catholic.ac.kr

한국교회사아카데미 7기 신입생 모집
교과목 : 박해시대 교회사, 근현대 교회사, 중국교회사, 북한교회사, 건축사, 예술사, 순교영성사 등
강사 : 노길명 ,변진흥, 장정란, 서종태, 김정숙, 김정신, 윤진 등
수업 : 3.3부터(매주 화) 18:30~21:20
15주 강의
접수 : 2.21(금)까지
☎ 070) 8672-0327 순교영성연구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 11.28(토)까지

환경 실천 사항

가족들과 함께 하는 지구를 위해 "하다"

2월 실천내용

휴대전화 재료인 '콜탄'이라는 광물을 캐느라 아프리카의 아동노동착취가 심각합니다. 숲과 동물도 죽어갑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주변의 아름다운 소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한달을 만들어 보세요.

출처 :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이콘연구소 18기 신입생 모집
개강 : 3.2(월)
분야 : 이콘제작 및 연구(3년 과정)
대상 : 60세 미만
실기시험 : 2.22(토), 2.24(월) 10:30 중 택1
시험장소 : 가톨릭출판사 신관 6층
(서울 중구 중림로 27)
☎ 02) 313-9973

茶아카데미 입문반 7기 모집
때 : 3.4(매주 수)부터 14:00~16:00
1학기 15주, 2학기 15주
비용 : 25만 원(한 학기)
마감 : 2.29(토)까지 전화접수
☎ 010) 6478-5144 가톨릭다례문화원

춘천교구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2020 여름 신앙 캠프
일정 : 수련원 홈페이지 참조
비용 : 초등(6차) 13만5천 원
중고등(2차) 14만 원
신청 : 3.9(월) 09:30 온라인 신청(선착순)
☎ 033) 255-6602

수원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신입 단원(남) 추가 모집
대상 : 교구 내 세례받은 초2~4학년
남자 어린이
기간 : 상시
신청 : www.unitas.or.kr
☎ 010) 2737-3879, 010) 5229-1579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정규입학 설명회
때 : 3.14(토) 10:30 (예약 필수)
대상 : 초5~고1(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신청 : www.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 02) 2258-8983

임진강을 따라 걷는 2020 DMZ 평화의 길
때 : 4.30(목)~5.3(주일) 3박 4일
곳 : 파주-연천 구간
대상 : 초3학년 이상
인원 : 선착순 100명
회비 : 15만 원
신청 : www.pu2046.kr
주최 :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031) 941-2766

상담소

성라파엘 상담소
때 : 월~금 10:00~17:00. 주말 상담 가능
곳 : 중앙 성당 내 1층
내용 : 개인 심리 상담, 부부 및 가족 상담
상담방법 : 1:1 면접상담
☎ 031) 446-7573

가톨릭 여성 상담소
때 : 매주 화~금 11:00~16:00
내용 : 가족(부부, 자녀) 갈등, 커플·이성 문제, 적응 및 관계 어려움 무료 상담 지원
전화예약 후 대면 상담
☎ 031) 502-0667~9

채용 및 봉사자

2020년 대건청소년해외봉사단 의료봉사자 모집
때 : 7.23(목)~8.1(토) 8박 10일 예정
지역 : 라오스 폰홍 지역
대상 : 청소년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경력 3년 이상), 28세~50세 이하 신자
인원 : 1명
접수 : 3.17(화)까지
신청 : www.csdy.or.kr 참조
☎ 031) 360-7922 (재)대건청소년회

'어부들' 봉사자 모집
대상 : 율동과 음악을 좋아하는 신자
활동 : 주일학교 노래, 율동 개발 등
☎ 031) 8019-5397, 010) 4999-1416

본당 봉사자 모집
분당야탑동 본당 지휘자 / 2.29(토)까지
군포 본당 지휘자 / 모집시까지
이천 본당 반주자 / 〃
능평 본당 반주자, 지휘자 / 〃

채용

교구

관리국 시설관리, 법인재산관리 / 2.28(금)까지
홍보국 홍보직·웹디자인 / 3.2(월)까지

기관

데레사 유치원 운전기사 / 2.20(목)까지
성라자로마을 사무원 / 2.24(월)까지
성루카병원 의사, 간호사, 약사 / 2.28(금)까지

본당

이천 본당 사무장 / 채용시까지
철산3동 본당 사무원 / 〃

성지순례

비안네 성지순례
때·곳 : 3.9(월) 베트남 다낭 성지순례 3박 5일
비 용 : 125만 원
때·곳 : 3.31(화) 성모님발현지 3개국 12일
비 용 : 395만 원
때·곳 : 4.28(화) 이스라엘 요르단 7박 9일
비 용 : 397만 원 부터
점프투어리즘
☎ 031) 706-9175 www.천주교성지순례.kr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때·곳 : 4.16(목) 짜께우 라방 다낭(국적기 5일)
비 용 : 130만 원(신부님 동행)
☎ 031) 239-2571 최금욱 최형베드로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때 : 5.18(월)~6.1(월)
곳 : 이스라엘, 스페인, 루르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 010) 9462-3220 정다리아 수녀

제주 성지순례
일정 : 매월 출발, 3박 4일
비용 : 32만 원
내용 : 미사 4번(성지 6개, 신부님 동행, 특2급 호텔, 지역 공항 출발)
☎ 010) 5150-2625 마르코 여행

YouTube 검색창에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교구 제1대리구
수원교구 제2대리구

성 소 피 정	일 시	장 소	비 고	문 의
살레시오회	2.22(토)~23(주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4층 (여의대방로65)	예비 중1~예비 고2	010) 7427-4627 010) 3894-1332

초등부 주일학교 교재 '빵' 시리즈 / '물고기' 시리즈

어린이들이 교재를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경말씀과 체험 신앙을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사목자·부모·교리교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발　행 : 천주교 수원교구
출판사 : 하상출판사
문　의 : 031) 243-1880
www.youth.casuwon.or.kr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재 엠마오로 가는 길 시리즈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르심을 체험할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 과마다 해당 복음의 학습 목표와 주제성구를 통하여 그날의 교리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발　행 : 천주교 수원교구
출판사 : 하상출판사
문　의 : 031) 243-1880
www.youth.casuwon.or.kr

신간

SNS 시대의 신앙

SNS를 통해 교회는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것인지 사목 방향을 모색 하고,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저　자 : 안토니오 스파다로 | 이창욱
출판사 : 바오로딸
가　격 : 8천 원
문　의 : 02) 944-0944
www.pauline.or.kr/

전시

이콘연구소 15기 졸업작품전 '영혼의 빛을 따라서'

때 : 2.19(수)~2.25(화)
곳 : 갤러리 1898
(1898 명동성당 B1)
문의 : 02) 313-9973

※ 공연 및 신간 게재 문의 ☎ 031) 242-8081